

우리나라 최장수 등록상표 20

- 그 중 국내상표는 “샘표”와 “진로”로 1, 2위 -

□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중 최장수 상표는 “샘표”, 두 번째는 “진로”, 세 번째는 “PEPSI-COLA”

○네 번째 이후로는 “EVERREADY”, “CAMEL”, “EXECUTIVE”, “NAC ET”, “VALET”, “Smith-Corona”, “Winston”, “IBM”순임

○“샘표”는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존속중인 44만 5천여 건의 상표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샘표식품주식회사가 1954. 5. 10 등록한 상표

○이들 상표는 모두 1954년도에 등록된 후 4 회에 걸쳐 존속기간을 연장하여 반세기 가까이 장수하고 있음

□ 20개의 최장수 상표중 국내상표는 2개, 미국상표가 17개, 일본상표가 1개

○국내상표가 2개에 불과한 것은 상표등록이 처음 시작된 1950년 초에는 우리나라의 산업발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 상표등록 건수가 적었고 당시 상표의 등록이 많았던 고무신, 청주 등의 산업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침체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임

○외국상표들은 대부분 문자상표로서 등록 당시와 같은 형태로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상표들은 도형이 결합된 상표로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세련된 형태의 새로운 상표를 개발 사용하고 있음

○현재까지도 널리 알려져 있는 “샘표”, “진로”, “PEPSI-COLA”, “IBM”등은 상호의 약칭이며 상표로서 명성을 쌓은 후 회사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표관리를 해 오고 있어 타 제품상표에 비해 더 오랜 기간 생존해 온 것으로 보임

□ 1952년부터 상표등록이 시작된 이래 약 60만건의 상표가 등록되었으며, 이 중 1952년도와 1953년도에 등록된 280여건의 상표들은 모두 소멸되고 현재는 1954년 이후에 등록된 44만여 건이 존속

○존속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상표가 소멸되는 주된 원인

- 상표를 사용하던 상품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른 상품으로 대체된 경우
- 저가상품에 사용되던 상표로서 고가상품에는 사용하기 부적합하게 된 경우
- 상표의 디자인이나 문자의 의미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부하게 된 경우
- 기업의 도산이나 경영악화로 상표를 사용한 상품의 생산을 중단하게 된 경우 등임

우리 식탁생활 방식이 변하고 있다

○ 특허청에 의하면, 90년대 초·중반(1992~1996)에는 식탁용 기구 중 전통적인 숟가락(스푼) 및 젓가락의 출원 비중이 약 8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5년간(1997~2001)에는 포크 및 테이블나이프의 출원비중이 약 40%로 그 비중이 점차 커져 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젓가락 및 스푼의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 건수는 1992~1996년까지 124건에서 최근 5년간(1997~2001년)에 167건으로 1.3배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 포크는 1992~1996년까지의 특허 및 실용 신안건수가 8건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5년간(1997~2001년)에의 특허 및 실용신안 건수가 45건으로 약 5.6배 증가하였다. 또한 테이블나이프는 1997년에는 8건이 실용 신안 출원되었으나 2001년에는 특허 및 실용신안건수가 18건으로 증가하였다.

○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식생활문화가 점차 서구화되는 것과 식탁용 기구업계의 국제화를 통한 생존전략으로 파악된다.

○ 특히, 종전의 수저(젓가락과 숟가락)셋트의 기술개발이 주로 단순한 재질변경이나 형상변경에 의한 위생과 편의성 향상 등에 치우쳐 왔던 점에 비하여 최근에 포크 및 테이블나이프의 기술은 다기능을 가진 겸용성 및 특정한 효과를 갖는 기능성이 가미되는 것이 특징으로 그 기술개발방향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 식탁용 기구중에서 다기능을 갖는 겸용(숟

가락과 젓가락 또는 젓가락과 포크, 포크와 숟가락)기술의 경우 출원건수가 1997년 4건에서 2001년 26건으로 약 6.5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 기능성 식탁용 기구 또한 출원건수가 1997년에 불과 1건이었던 것이 2001년에는 6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대표적인 겸용성 및 기능성 식탁용 기구로는 하나된 수저와 포크, 형상기억합금을 이용한 모양이 변화하는 식기류, 향기나는 음식용 기구, 학습용 젓가락 등을 들 수 있다.

○ 식탁용 기구의 연간 국내 시장규모는 약 1000억원이나 이중 국내의 중·저가는 주로 중국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내업체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식탁용 기구 기술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디자인의 개선을 통한 고급 브랜드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다.

- 대표적인 국내업체로는 (주)백산상사, 리빙센스, (주)아이엠피, 보화스텐레스 등을 들 수 있다.

○ 향후계획

특허청에서는 식탁용 기구를 포함한 생활용품 관련 기술협의회(가칭 생활용품 기술협의회)를 민간업체와 구성하여 상호정보교류를 추진하고 또한 2003년에 PM(Patent Map) 사업에 한 분석과제로 식탁용 기구를 포함한 생활용품 관련 기술을 선정하여 업계의 기술개발방향을 올바로 제시하기로 하였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특허출원 내국인이 우위

폐 플라스틱의 소각 및 매립에 따른 다이옥신, 환경호르몬 배출 등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친화적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특허 출원에서 내국인이 외국인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 동안 출원된 생분해성 플라스틱 관련 특허는 모두 167건으로 이중 67.1%인 112건이 우리나라 기업 및 연구소와 발명가들에 의한 것으로 집계 됐다.

이 기간 출원된 특허를 기술별로 보면 천연물질인 전분 등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에 혼합해 제조하는 전분계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110건으로 전체 출원의 65.9%를 차지했다.

이같은 전분계 생분해성 플라스틱 출원은 전반 5년(53건 중 45건, 84.9%) 동안 주를 이루다 후반(114건 중 65건, 57.0%) 들어서는 점차 비중이 감소했으며 반면 폴리락트산, 폴리카프로락톤 등의 합성에 의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실용화가 상당한 수준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미미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는 햇빛과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정도를 조절해 용도에 맞는 광분해도와 생분해도를 갖는 복합물질을 만드는 방향으로 기술이 개발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여성이여 지식재산권을 갖자

경제적 자립 기반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

숯을 이용한 냄새나지 않는 고기구이판·전통 한지를 이용한 사진인화지·페트병을 쉽게 딸 수 있는 병따개·솔뚜껑 구이기.

이들은 여성이 발명한 제품이면서 일상 속에서 발명의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를 발명품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아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요소가 되고 있다.

지식재산권은 국가가 새로운 발명, 고안에 대해 발명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한국여성발명협회에 따르면 상표권 출원에서 2001년에 2000년 대비 남성 0.3%, 여성 15.2%로 늘어났고 의장권의 경우 같은 기간 남성 출원은 6.1%, 여성은 36.8%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의 경우에는 여성발명 진흥을 위해 여성 발명 우대조항 신설, 자금지원, 여성발명품박람회, 여성대상 지식재산권 설명회, 여성 우수발명 사례 발표회 등의 지원 시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여성들의 경제적자립을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여성발명협회는 ‘여성 지식재산권 갖기 설

명회' 전국 순회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인식 전환을 시도하고 생활발명 기법·여성발명인의 발명 체험 사례를 제시, 여성들이 지식재산권에 가까워 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서울에서 진행된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은 생활 발명 사례들을 눈으로 확인하는 경험을 했으며 문답 형식의 강의에 흥미롭게 참여했다.

'이미 개발된 제품일지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시켜 발명품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설명회의 핵심내용. 한국여성발명협회 황소현 회장은 "발명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며 사고의 틀을 깨면 곧 발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여러 불편함을 개선하려는 문제의식이 곧 발명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라며 "여성 지식재산권 설명회를 통해 여성의 발명을 경제활동으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성 지식재산권 갖기 설명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의 시·도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월 전북을 시작으로 경읍시·충남·광주·순천·서울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출처 여성신문

[특허넷] 온라인 특허출원으로 年 2000억 비용 절감

일반적으로 '특허'라고 하는 것은 특허권 실용 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산업체산권을 말한다.

따라서 특허행정은 인간의 지적 활동의 결과물을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는 중요한 업무다. 특히 산업체산권의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는 국내 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첫번째는 지식에 대한 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해 개인이나 기업의 지식창출 활동을 보장해 준다. 특허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같은 지식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R&D) 방향도 설정해 준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프랑코 모딜리아니는 "미국이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원동력은 특허와 특허행정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강조했기 때문"이라며 특허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90년대 이후 무한기술경쟁시대에

돌입하면서 산업체산권출원과 분쟁이 급증했다. 91년도에 12만건이었던 산업체산권 출원은 95년에 그 두 배에 달하는 24만건을 넘어섰으며 98년 대전 정부청사로 이전하기 이전인 97년에는 25만 건을 넘어섰다. 이러한 산업체산권출원 증가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았다.

우선 특허청을 직접 방문하면서 이에 따른 민원 불편이 야기됐고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소요됐다.

게다가 특허청이 대전으로 이전하면서 전체 특허 중 70%를 차지하는 수도권 민원인들이 특허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늘어났다. 지난 97년을 기준으로 특허청 방문으로 인한 교통비, 인건비 등 민원비용은 무려 92억원에 달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작성된 출원서류를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특허넷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서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는 비용과

특허뉴스

시간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 같은 온라인 전자출원으로 연간 1700억여 원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전자출원에 따라 수수료 인하 등으로 특허출원서 100면 기준으로 건당 20만원의 비용을 절감해 매년 200억 원 이상 출원비용이 감소했다.

시간 비용 문제와 함께 문제가 된 것은 산업계가 특허정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는 데 있었다.

모든 특허·실용신안은 출원 후 18개월이 지나면 기술 내용을 공고공보로 발간한다. 상표·의장권은 등록공보를 발간한다.

책자로 발간되는 특허공보는 월 2~3회 유상으로 보급되며 극히 일부 대기업만 구입해 활용하는 게 현실이었다.

만일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특허청을 방문해 열람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출원건수가 증가하면서 책자공보의 발간 비용도 급격히 늘어났다. 책자형태의 공보를

발행하는 비용이 지난 94년 42억원이었던 데 반해 지난 97년에는 77억원으로 증가했고 검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98년 5월부터 CD롬 형태 공보를 발간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출원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부터는 인터넷을 이용해 공보를 발간하고 있어 매년 200억원 이상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과다한 문서를 남발하는 것도 큰 골칫거리였다. 과거처럼 단순한 특허가 아니라 복잡한 내용이 증가하면서 당연히 출원서류는 점점 많아졌다. 심사관들은 말 그대로 서류더미에 묻혀 일을 해야 했다.

특허넷은 그러나 출원에서 심사 등록 심판 공보 발간까지 모든 특허행정업무를 전산으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심사업무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고 출원포대, 공보책자 등 서류보관을 위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졌다.

출처 매일경제

북한말중 상표출원 1위 “백두산”

북한과 관련된 말 중 국내 상표 출원에 가장 많이 쓰인 것은 백두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북한의 지명·용어를 딴 상표 출원은 광복 후 지금까지 모두 1천1백53건.

이중 백두산이 1백25건(10.8%)으로 1위였다.

2위는 금강산(95건)이 2위였다.

행정구역명 중에는 신덕이 1위(87건)로 냉면의 대명사 평양과 함흥을 놀렸다.

신덕은 북한의 유명한 신덕 샘물을 본떠 생수·광천수 관련 출원이 많았으나, 실제 신덕 샘물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특허청측은 설명했다.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 낱말 중에는 아바이 순대에 힘입은 아바이가 25건으로 1위였다.

오마니가 들어간 상표는 15건에 그쳤다.

출처 중앙일보

특허제안 직원에 포상금 준다

SK텔레콤(대표 표문수)이 특허를 제안한 직원에게 수입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는 ‘특허인센티브제도’를 도입, 주목받고 있다.

SK텔레콤은 우선 지난 9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안된 특허를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30여명을 수상자로 선정, 총 2,000만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제안된 특허에 대한 시장은 오는 12월 말 약 3,000만원의 예산을 책정,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특허는 ‘통신시스템에서 보코더 채널의 음성품질 자동측정장치 및 그 방법’ ‘자동

음성품질 기능을 갖는 장비의 프로그램’ ‘CDMA 방식 기지국용 주기형 비콘신호 발생장치’ 등 총 12건.

SK텔레콤은 앞으로도 매년 말 당해 연도에 제안된 특허에 대한 보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액수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 회사의 한 관계자는 “구성원에게 기술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한편 기술자와 관리부서 직원, 마케팅 부서와 기술자 사이의 특허출원을 위한 협력 등 조직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서울경제

유럽특허청 인간 배아줄기세포 이용 복제 금지

유럽특허청(EPO)은 인간 복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3년 전의 연구용 특허권 내용을 수정, 인간 배아 줄기세포의 상업 목적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EPO는 이번 특허권 내용 수정을 통해 인간이나 동물 배아 줄기세포의 채취를 배제하고 인간 배아의 상업 목적 이용에 대한 특허를 금지하고 있는 유럽위원회 지침과 일치시켰다.

이같은 조치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정부 및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EPO에 정식으로 연구용 특허권 규정 수정을 요청함에 따라 취해졌다.

독일 뮌헨 소재 EPO는 지난 1999년 12월 호주 회사인 줄기세포과학에 유전자 조작을 위한 배

아 세포 추출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허 EP 695 351”을 발급해주었다.

배아 줄기 세포 추출은 영국 스코틀랜드 소재 에딘버러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입각 한 과정과 같은 것이다.

이번에 수정된 특허권 규정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성인 줄기 세포에 대한 연구만을 허용하고 있다. 성인 줄기세포는 살아 있는 유기체의 체세포로부터 추출될 수 있다.

EPO는 호주 회사에 특허를 발급한지 3개월 뒤 이론적으로 인간 배아의 유전자 조작을 허용할 수 있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특허권 보유자들은 그 뒤 인간을 복제하지 않

특허뉴스

는다는데 정식 합의하면서 인간 복제를 할 의향은 결코 없었다고 말했다.

에든버러대학 과학자들은 이 특허권이 간 세포가 실험실에서 어떻게 발육할 수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옹호하면서 과학적 관행으로 수용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간 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과진슨병 질환자들처럼 손상된 인간 세포를 교체하는데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보호주의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EPO가 처음에 위험한 특허권 허용을 내렸으나 이번에 이를 수정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환영했다.

크리스토프 코이센 특허담당 변호사는 EPO 청문회에서 독일 법무부를 대신해 EPO의 이번 수정 결정에 전적으로 만족한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변시 응시생 689명 2차 응시기회 박탈 논란

제39회 변리사 1차 시험 합격자 1천47명(합격 선평균 66.88점 이상)이 발표됐으나 시험제도가 절대평가에서 갑자기 수정절대평가로 바뀌는 바람에 절대평가 기준을 만족시키고도 2차 응시기회를 박탈당한 응시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특허청이 올해부터 1, 2차 시험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응시생 모두를 합격시키려던 절대평가방침을 지난 1월 변경, 1차 시험에서는 200명 안팎의 최소 합격인원의 5배수 순위 안에 포함돼야 합격하는 상대평가제를 병행 실시한 데 따른 것.

이에 따라 원래 방침대로 절대평가제를 시행했을 경우 1차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1천736명 중 689명이 제도 변경으로 2차 시험 응시기회를 박탈당했다.

이에 이들 응시생은 “특허청이 절대평가제를 시행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갑자기 제도를 바꾸는 바람에 무더기 탈락사태가 빚어졌다”며 “2차 시험 응시 기회 박탈에 따른 각종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

발하고나섰다.

이와 관련, 제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특허청은 절대평가제를 2차 시험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난이도에 따라 최종 합격자 수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따라 제도를 보완하면서 1차 시험 평가방법까지 바꿔 논란을 촉발시켰다.

입법예고 당시 변리사 시험을 준비 중이던 수험생들은 “2차 시험은 절대평가제로 하고 1차만 상대평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1차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는 특허청 직원의 합격을 지원해주는 꼴”이라며 특허청의 조치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1차 시험제도 변경으로 수험생 개별적으로는 득실이 있을 수 있으나 수천명이 2차 시험에 응시할 경우 채점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최종 합격자 수와 응시생 수 사이에 극심한 불균형이 초래되는 등 부작용을 막는 동시에 제도의 합리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갑자기 바뀐 시험제도에 수

협생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시험일을 예년보다 두 달 가량 늦추고 각종 수단을 동원해 변경된 시

협제도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연합뉴스

외국상표 실시 비중 너무 높다

외국인 보유상표의 사용비중이 국내인 보유상표를 훨씬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www.kipo.go.kr)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내외국 상표별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설정등록 현황 조사결과 설정건수의 81%가 외국상표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전용 및 통상사용권을 등록상표를 보유한 업체와 실시계약을 맺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전용은 독점적 권리를, 통상사용권은 일정범위의 사용권리를 갖는다.

조사결과 전용사용권 실시의 경우 199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3,617건 중 외국인 보유상표가 2,897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통상사용권도 1985년 이후 지난해 6월까지 1만 6,205건 중 외국인 상표 실시가 1만3217건으로

81.5%에 달했다.

또 1990년 5,909건였던 외국상표의 국내사용권 설정 누적 건수는 95년 1만1,595건, 2000년 1만 5,83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야별로는 의약 및 화학품류에서의 외국상표 설정 비중이 4,360건중 4,116건으로 94.4%에 달하고 신발 및 의류도 3,068건중 2,477건으로 80.7%에 달했다.

특허청 상표심사담당관실 이병택 서기관은 “우리나라가 세계적 수준에 올라있는 의류 및 신발에서도 외국 브랜드 사용 비중이 높은 것은 국내 기업의 브랜드 육성이 상대적으로 소홀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